

통감부 시기 궁내부 왕실 건축조직의 재편

Reorganization of Royal Architectural Bureau in Gungnaebu during 1905-1910

이 규 철*

Lee, Geau-Chul

(도쿄대학 JSPS 외국인특별연구원)

Abstract

Through the changes of royal architectural bureau in Gungnaebu,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modern transition of traditional facilities belonging to Gungnaebu as well as the constituent of human resources in royal architectural bureau. Yeongseonsa, the royal architectural bureau in Gungnaebu after 1905, was comprised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engineers including Sim Euseok, and they tried the modern transition of traditional royal facilities gradually. But, Yeongseonsa was transformed to Naejangwon Tomokgwa which was comprised of Kim Yungu and Japanese modern architectural engineers. As Kim Yungu was the modern civil engineer not architectural engineer, Japanese architectural engineers took the lead in the architectural activities of Naejangwon Tomokgwa, and Japanese architectural technology was applied to Korean royal facilities since then.

주제어 : 왕실 건축조직, 대한제국, 심의석, 김윤구, 궁내부, 영선사, 내장원 토목과

Keywords: Royal Architectural Bureau, Korean Empire, Sim Euseok, Kim Yungu, Gungnaebu, Yeongseonsa, Naejangwon Tomokgwa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영 건축조직은 국가 시설의 재료, 규모, 양식, 기법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형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전통시대에는 국가의 건축활동이 당대 건축의 흐름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건축조직은 건축의 시대적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건축에서도 전근대시대에서 근대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관영 건축조직이 크게 변화하면서 건축 형식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건축조직인 선공감(繕工監)은 공조(工曹) 소속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건축활동을 담당하였다.¹⁾ 하지만, 갑오개혁 이후 내각과 궁내부로 국가조직이 분리되면서 국가

의 건축활동은 두 기관에서 각각 양분하여 관리하게 된다.²⁾ 내각에는 공무아문(工務衙門) 건축국(建築局)을 비롯한 각부에 건축과 수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조직되었다가, 1906년에 대부분의 건축 업무가 탁지부 건축소로 통합되어 관리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각의 업무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근대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건축조직에서는 주로 근대적인 건축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전통시설을 개조하여 근대적 기능에 맞게 활용하는 건축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조직의 인적구성도 일본인 기술 인력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소수의 근대적인 건축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 인력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³⁾ 내각의 건축조직과는 달리 기존의 관영 건축조직인 공조의 선공감을 계승한 궁

* Corresponding Author : leegeauchul@gmail.com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8-H00004]

이 논문은 일본 정부의 연구보조금(MEXT/JSPS KAKENHI)을 지원 받아 연구되었음. (Grant Number: 26·04060)

1) 선공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나영훈의 연구가 참고된다. (나영훈, 「조선초기 선공감의 운영과 관원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62, 2012)

2) 내각과 궁내부의 건축조직 변화는 이규철의 글이 참고된다. (이규철, 「궁내부와 이왕직의 영선조직」,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a)

3) 김의용, 「1880~1945년 한국 관 건축조직의 변천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태중, 「개항이후 총세무사가 주관한 관영공사기구에 관한 연구: 해관등대국·세관공사부·건축소의 조직과 직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금도,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권 4호, 2007 등.

내부의 건축조직은 주로 전통시설의 건축과 수리를 담당하였다. 내각의 건축조직이 새로운 기술과 시설의 도입에 집중하였다면, 궁내부의 건축조직은 기존의 왕실 건축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능에 맞추어 증축, 개축, 이축 등을 주로 시행하였다.⁴⁾

이러한 근대이행기 건축조직의 양분화는 근대적인 건축기술의 도입과 전통적인 건축 형식의 유지라는 대립된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 건축이 점차 서양 또는 일본의 근대적인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의 건축조직에 대해서는 “해관-탁지부-조선총독부”로 이어지는 건축조직의 변화와 건축활동이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⁵⁾ 궁내부의 건축조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직의 구성 이외에 근대적인 건축활동을 포함한 건축조직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⁶⁾ 궁내부의 건축조직은 왕실 건축을 최후까지 담당하면서 근대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궁내부 왕실 건축조직의 변화를 통해 가장 보수적인 궁내부의 전통 시설이 점차 근대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인적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건축조직의 변화 과정도 함께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궁내부 왕실 건축조직의 재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1905년에서 1910년의 통감부 시기로 한정하였다. 이 시기에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빠르게 일본의 식민지 체제로 변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궁내부의 건축조직도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변화이지만, 선공감과 영선사의 전근대적인 건축조직이 식민지 체제의 왕실 기구인 이왕직(李王職)의 건축조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밀도 높은 변화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통감부 시기의 왕실 건축조직의 재편을 살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갑오개혁 이후 궁내부의 영선사에서 내장원 토목과,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이왕직의 건축조직으로 변화하는 행정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서 영선사와 내장원 토목과의 조직 구성 및 건축활동

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각 조직의 인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사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1차사료의 부족으로 『관보』를 주로 활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궁내부와 이왕직에서 편찬한 『직원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건축조직의 인적구성을 상세히 확인하였다.⁷⁾ 또한, 궁내부의 건축도면, 『대한제국관원이력서』를 비롯한 개인 이력 관련 자료, 그리고 『관보』와 신문기사 등을 통해 궁내부의 건축조직과 건축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2. 왕실 건축기구의 변화 과정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왕실과 정부가 분리되어 궁내부와 내각이 각각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궁내부와 내각의 분리에 따라 궁내부에는 기존의 관영 영선조직이었던 공조의 선공감을 계승하여 왕실 관련 시설의 영선을 담당하는 전각사(殿閣司)가 설치되었다.⁸⁾ 전각사는 1895년 4월에 제용원(濟用院)의 영선사로 편입되어 왕실의 “토목, 영선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고,⁹⁾ 1896년 1월에는 궁내부 직속의 영선사로 다시 개편되어 “왕실에 속한 토목, 영선 사무를 담당”하였다.¹⁰⁾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왕실 건축기구의 명칭과 편제는 바뀌었지만, 이전 시기의 선공감 등에서 지속해 온 왕실의 토목과 영선 업무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¹¹⁾

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궁내부는 재정고문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주도로 ‘황실재정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궁내부에는 1904년 이후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제도국(制度局)-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으로 이어지는 황실재정정리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기구에서 궁내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한편 왕실시설에 대한 조사와 측량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¹²⁾ 이러한 과

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궁박물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본문의 각주에서 밝혔다.

8) <議案 宮內府官制>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국회도서관, 1970, pp. 3-4)

9) <布達 第一號 宮內府官制> (국회도서관, 위의 책, 1970, pp. 304-316)

10) <布達 第五號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국회도서관, 위의 책, 1970, pp. 613-621)

11) 이하 궁내부와 이왕직의 건축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문 자료를 확인하여 수정·정리하였다. 우대성, 위의 논문, 1997;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40, 2007; 이규철, 위의 글, 2013a.

4) 우대성, 「대한제국의 건축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5) 김의용, 위의 논문, 1993; 김태중, 위의 논문, 1994; 이금도, 위의 논문, 2007 등.

6) 우대성, 위의 논문, 1997

정에서 영선사가 담당하는 건축사업은 대폭 축소되었고, 영선사는 1907년 12월에 궁내부의 재정 담당 기관인 내장원(內藏院)의 토목과(土木課)로 편입되었다.¹³⁾ 서무과, 토목과, 회계과로 분과되어 공사관리 뿐 아니라 문서관리와 회계관리도 함께 담당했던 영선사의 조직은¹⁴⁾ 궁내부의 재정기관에 부속되어 공사관리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된 것이다.¹⁵⁾¹⁶⁾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는 궁내부의 업무가 이왕직으로 이관되면서, 내장원 토목과의 업무는 이왕직의 회계계(會計係) 영선실(營繕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¹⁷⁾ 이후 영선실은 1915년 3월에 이왕직 직속의 주전과(主殿課)로 독립되었고,¹⁸⁾ 1918년 6월에는 영선과(營繕課)로 개칭되어¹⁹⁾ 1920년까지 이왕직의 건축조직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하지만, 창덕궁 복구가 끝난 직후인 1920년 11월부터는 다시 회계과로 편입되어 건축조직은 크게 축소되었고,²⁰⁾ 1945년 해방 때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Tab.1 Changes of Royal Architectural Bureau in the Korean Modern Period

구분	건축조직 변천
宮内府	殿閣司(1894.06) → 濟用院 營繕司(1895.04) → 營繕司(1896.01) → 內藏院 土木課(1907.12)
李王職	會計係 營繕室(1911.02) → 主殿課(1915.03) → 營繕課(1918.06) → 會計課 營繕係(1920.11)

이와 같은 왕실 건축조직의 변화에서, 영선사에서 내장원 토목과로의 재편과 한일 병합 이후에 이왕직의 건축조직으로의 재편은 대한제국이 점차 일제의 식민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 구조적 변화이다. 이

12) 황실재정정리에 의한 황실시설의 조사와 황실시설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규철의 연구가 참조된다. (이규철, 「통감부 시기 황실시설의 조사와 국유화」, 『건축역사연구』 22권 4호, 2013b)

13) <宮内府令 第七號 內藏院分課規程> (『한말근대법령자료집』 VI, 국회도서관, 1971, pp. 99-100)

14) <宮内府令 第五號 營繕司分課規程> (『한말근대법령자료집』 V, 국회도서관, 1971, pp. 136-137)

15) <宮内府令 第七號 內藏院分課規程>의 제5조.

16) 이러한 궁내부 조직의 변화는 1904년, 1905년, 1907년의 <한일협약>에 의한 소위 ‘고문정치- 통감정치-차관정치’에 따라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궁내부 조직의 대략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규철의 연구가 참조된다. (이규철, 위의 논문, 2013b, pp. 60-62)

17) <李王職事務分掌規程> (『순종실록 부록』, 1911.2.1) 이 분과규정에서는 회계계의 4가지 분과 중에 “三. 營繕에 關한 事項”이 확인되고, ‘營繕室’의 존재는 『이왕직직원록』(이왕직 서무과 인사실, 1911/1914)에서 확인하였다.

18) <李王職職員事務分課規程改正> (『순종실록 부록』, 1915.3.24)

19) <李王職事務分掌規程> (『순종실록 부록』, 1918.6.15)

20) <李王職職員事務分課規程改正> (『순종실록 부록』, 1920.10.30)

러한 왕실 건축조직의 변화과정은 왕실 건축의 직접적인 주체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왕실 건축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1905년 이후 영선사 조직의 변화

3-1. 영선사 조직의 개편

1894년 갑오개혁으로 궁내부와 내각이 분리되었지만, 이후 추진된 고종의 강력한 근대화 정책은 오히려 궁내부의 기구를 확대하여 정부의 근대화 사업을 주도하였다.²¹⁾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의 주도권을 획득한 일본은 이러한 궁내부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 1904년 10월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타네타로의 부임과 함께 황실재정정리를 추진하였고, 궁내부에 설치된 제실제도정리국은 궁내부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1905년 3월에 궁내부 관제가 개정되어 궁내부는 실제로 정부의 업무와는 엄격히 분리된 궁내부 관할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²²⁾

궁내부 소속의 영선사 역시 1905년 이후에는 “궁궐을 비롯한 왕실시설, 그리고 궁내부에 속한 여러 관청의 영선에 관련된 사무와 이에 필요한 회계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고,²³⁾ 왕실 이외의 건축사업에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의 영선사 직원은 영선사장 1명, 기사 3명, 기수 2명, 주사 5명이었고,²⁴⁾ 이중 건축공사와 직접 관련된 기술직은 기사와 기수를 합하여 5명이다. 1906년의 <영선사분과규정>에 의하면 영선사는 서무과, 토목과, 회계과로 분과되어 있었는데,²⁵⁾ 기수와 기사는 모두 토목과에 속해 직접 공사를 담당하였을 것이고, 5명의 주사는 서무와 회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궁내부관안(宮内府官案)』,²⁶⁾ 『궁내관리등급(宮内

21)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100-123.

22)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p. 241-243.

23) <布達 第126號 宮内府官制 改正> (국회도서관, 위의 책, 1971, pp. 45-59)

24) <布達 第126號 宮内府官制 改正> (국회도서관, 위의 책, 1971, pp. 45-59)

25) <宮内府令 第五號 營繕司分課規程> (국회도서관, 위의 책, 1971, pp. 136-137)

26) 『궁내부관안』, 궁내부 대신관방 인사과, 19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궁내부관안』의 표지에 “光武九年四月至十年九■”(■ 글자는 훼손되어 알 수 없지만 月로 추정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용에는 1905년 4월부터 1906년 9월까지 근무한 궁내부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Tab.2 Officials in Yeongseonsa (1905.3-1907.11)

직급	영선사 관원 (임명일자-해임일자)
長	姜鳳朝(1905.03.23) → 趙南升(1906.04.08) → 李輔榮(1906.04.20) → 南廷奎(1906.05.17) → 金永振(1907.07.06) → 沈宜碩(1907.08.30)
技師 一	蔡賢植(1905.03.23) → 吳允默(1905.06.12) → 崔在鵬(1906.06.28-1907.09.27)
技師 二	宋啓昌(1905.03.23) → 李宗雲(1905.11.12)
技師 三	朴鳳陽(1905.03.23) → 吳允默(1906.07.12)
技手 一	全達弘(1905.03.23) → 李泌榮(1906.08.25)
技手 二	趙漢禎(1906.08.25) → 姜泰均(1907.04.18) → 李年應(1907.05.09) → 朴啓弘(1907.10.23)
主事 一	白鳳彬(1905.04.06) → 劉時懺(1905.09.19) → 劉海鐘(1906.04.14)
主事 二	金弘基(1905.03.23) → 林炳贊(1906.08.25)
主事 三	朴泰秀(1905.03.23) → 金成鎭(1906.07.04) → 方敬喜(1907.02.03)
主事 四	趙永元(1905.03.23) → 吳駿根(1905.07.15) → 金宇植(1906.08.25) → 韓冕愚(1907.03.09) → 趙漢禎(1907.04.18)
主事 五	朴容濤(1905.04.06) → 趙秉億(1906.07.13) → 金洛純(1907.02.03) → 趙宣增(1907.02.11) → 金宇植(1907.03.13)

* 1905년 3월부터 1906년 9월의 직원 현황은 『궁내부관안』에서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영선사가 폐지되는 1907년 11월까지의 직원 현황은 「대한제국의 건축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우대성, 1997, 표15), 『관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등을 확인하여 수정·정리하였다.
* 1907년 8월 9일자로 主事는 書記郎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官吏等級』, 27) 『승등안(陞等案)』, 28) 『관보』 등 궁내부 관리의 인사기록을 통해 1905년 이후 내장원 토목과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영선사 관원의 재직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Tab.2>)

2년 8개월 동안 영선사에 재직하였던 기술직인 기사와 기사 12명 중에서 이연응과 강태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적인 기술관료들이다. 29) 채현식, 오윤묵, 박봉양, 이필영 등은 행정관료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영선사, 통신사(通信司) 등의 기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기술관료가 된 인물들이고, 최재봉, 이종운, 송계창, 박계홍 등은 장인 출신으로 여러 왕실 건축공사에 참여하다가 기술관료가 된 인물들이다. 30) 또한, 기사 이연응은 관립법

27) 『궁내관리등급』, (궁내부), 19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첫 장에 “光武十年一月 宮內各院司 勅奏判任官等級”이라 기록되어 있어, 1906년 1월의 궁내부 관리 등급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승등안』, 궁내부 비서관, (19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897년 4월부터 1906년 3월까지 궁내부 직원의 승등(陞等) 초록(抄錄)이다.

29) 기사 전달홍과 조한정의 1905년 이전 이력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후술하는 행정관료 또는 장인 출신의 전통적인 기술관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0) 『대한제국관원이력서』와 『관보』 등을 확인하였다.

어학교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 관서법률학교(關西法律學校)에서 유학을 하고 궁내부의 영선사 기사로 근무하게 된 인물이고, 31) 강태균은 관립일어학교 출신이다. 32) 두 명 모두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기술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업무보다는 통역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직인 주사(主事)를 지낸 인물들은 대부분 궁내부의 여러 관청을 순환하며 영선사의 주사를 담당하였지만, 예외적으로 기사 조한정과 유해중은 같은 영선사의 주사로 옮겨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편, 정식 관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위원(委員)으로 임명된 관원도 일부 확인이 된다. 영선사 위원 박계홍, 길완근, 이종운 등은 모두 장인 출신이고, 34) 박계홍과 이종운은 각각 정식 기술관원인 기사와 기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길완근은 군인 출신으로 궁내부 공사에 참여하였다가 잠시 영선사의 위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35) 파견 근무의 형식으로 군부와 관련된 공사를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선사 위원의 경력이 모두 확인되는 않았지만, 확인된 위원은 대부분 현장 기술직으로 영선사의 기술직 관원인 기사와 기사를 보충하는 관계 외 임시직으로 판단된다. (<Tab.3> 36)

Tab.3 Wiwon(委員) in Yeongseonsa (1901.4-1907.10)

직급	관원 (임명일자-해임일자)
委員	朴啓弘(1904.09.12) → 姜弼周(1907.10.23) 李東信(1905.04.23) → 趙鍾喆(1906.12.25) 吉完根(1905.04.22-1907.01.25) 李宗雲(1901.04.07-1905.11.12) 金鎭宇(1901.04.07-?)

3-2. 심의석과 영선사의 건축활동

영선사의 기술직 및 행정직 관원들의 재직 현황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선사의 책임자인 영선사장에서는 특별한 변화의 모습이 확인

31) 『대한제국관원이력서』(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72, p. 34.
32)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p. 862.
33) 1907년 8월 9일부터는 主事가 書記郎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35) 길완근의 영선사 위원 임명일은 『관보』에 1903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는 190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1897년부터 1907년까지의 이력이 자세히 적혀 있어 이 기록을 따랐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p. 730)
36) <Tab.3>의 위원은 『대한제국관원이력서』, 『관보』, 신문기사 등에서 확인된 인물만을 포기한 것이다. 위원이 정식 관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의 정원을 알 수는 없고, <Tab.3>의 인물 외에 다른 위원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Tab.4 Career of Sim Euseok

일자	나이	경력
1854.08.03.	-	서울 태생 (본관 청송)
- 1884	- 30	가정수업(家庭受業)
- 1892	- 38	공업(工業)
1892.12.	38	무과 급제
1895.05.04.	41	내부 기사 판임관 6등
1906.04.21.	52	토목건축주식회사 창립 참여 ³⁹⁾
1907.08.30.	53	궁내부 영선사장 종2품
1907.11.	53	궁내부 내장원 기사
1908.02.07.	54	팔괘장 3등 훈장 ⁴⁰⁾
1908.04.14.	54	궁내부 내장원 기사 사임 ⁴¹⁾
1908	54	한성재목시탄주식회사 창립 참여 ⁴²⁾
1908	54	유희회사(=경성유희주식회사) 창립 참여 ⁴³⁾
1908.10.05.	54	내부 기사 주임관 1등 종2품 ⁴⁴⁾
1910.10.	56	발령 누락 ⁴⁵⁾ (사임 추정)
1913.06.	59	경성부 참사 사임 ⁴⁶⁾
1917-1920	63-66	대조전 복공공사 1기 담당 ⁴⁷⁾
1924.04.28.	70	서울 봉익동 5-1번지에서 작고 ⁴⁸⁾

* 『대한제국관원이력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1908년 이후의 경력은 각주의 신문기사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된다. 강봉조, 조남승, 이보영, 남정규, 김영진 등의 영선사장은 12일에서 13개월여의 임기를 지냈으며, 평균 6개월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영선사장을 역임하였다. 이들은 모두 궁내부의 행정 관료 출신으로,³⁷⁾ 각종 공사의 감동(監董)을 맡기도 하였지만 기술적이 아닌 행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이었다.³⁸⁾ 하지만, 1907년 8월에 영선사장이 된 심의석의 경우는 이전의 인물들과는 다른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선행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내부 기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전통 목조 기법과 서양의 석조 기법에 두루 능통한 기술자이자 관원이었다.⁴⁹⁾ 그는 장인 출신으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 전통적인 기술 관료로서 내부 기사를 거쳐 영선사장이 되었고,⁵⁰⁾ 1907년 11월 영선사가 내장원 토목과로 이관된 이후에도 내장원 토목과의 유일한 ‘기사’로서 기술직을 총괄하였다. (<Tab.4>) 특히, 그가 궁내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선사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점은 그의 기술적인 능력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의석이 영선사장이 된 1907년 8월은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하기 위해 창덕궁을 수리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다.⁵¹⁾ 또한, 순종의 이어와 함께 내각, 중추원, 궁내부 등의 관청도 창덕궁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었으며,⁵²⁾ 창덕궁 앞 좌우에 각 관청을 양제(洋製)로 신축하고 창덕궁에서 통감부에 이르는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되었다.⁵³⁾ 이러한 대규모 계획의 창덕궁 공사는 기존의 창덕궁 건물의 보수를 위한 전통적인 건축 기술이 필요하기도 했고, 양식의 새로운 관청을 신축하기 위한 근대적인 건축 기술이 필요하기도 했다. 따라서, 심의석은 궁내부 밖의 기관인 내부 소속이지만, 궁내부 영선사의 전통적인 기술 관원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창덕궁 공사를 위해 특별히 초빙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선사장이 된 심의석은 약 두 달 반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13일에 창덕궁 수리를 시작하였고,⁵⁴⁾ 정확히 한 달 만인 11월 13일에 순종 황제가 창덕궁으로 이어하였으며 내각은 12월 15일에 창덕궁으로 이전하였다.⁵⁵⁾ 이 공사의 공로로 심의석은 1908년 2월에 3등 팔괘장의 훈장도 받게 된다. (<Tab.4>) 1907년의 창덕궁 공사는 짧은 공사기간으로, 일부 기존의 전각을 철거하고 인정전 영역과 내전 영역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 (<Fig.1>)⁵⁶⁾ 하지만,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가

37)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관보』; 우대성, 위의 논문, 1997, pp. 61-67:97.

38) 우대성은 남정규와 김영진을 기술 관원으로 파악했지만, 이들이 궁내부에서 맡았던 관직과 경력은 행정직 또는 공사 책임자의 업무로서 기술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대성, 위의 논문, 1997, pp. 67:97)

39) <土木建築株式會社株式募集廣告>, 《황성신문》, 1906.6.9.

40)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8.2.12.

41)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8.4.18.

42) <本社創立總會期日은>, 《황성신문》, 1908.7.21.

43) <隆熙會社總會>, 《황성신문》, 1908.9.22.

44)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8.10.9.

45) <三氏云落>, 《매일신보》, 1910.10.4.

46) <俞氏道參事任命>, 《매일신보》, 1913.6.7.

47) <昌德宮新內殿>, 《매일신보》, 1920.7.8.

48) 심의석의 생몰 정보는 우대성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우대성, 위의 논문, 1997, pp. 82-83)

49) 우대성·박연곤, 「한국의 근대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6권 2호, 1996; 우대성, 위의 논문, 1997, pp. 82-95; 김정동, 「심의석이 세운 독립문과 독립관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이규철, 위의 글, 2013a 등.

50)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pp. 366:654:831:900.

51) 「東闕修理」, 《황성신문》, 1907.7.31.

52) 「閣院移建」, 《황성신문》, 1907.10.22; 「內閣移去」, 《황성신문》, 1907.10.23.

53) 「宮闕新築」, 《황성신문》, 1907.11.8.

54) 「今日始役」, 《황성신문》, 1907.10.13.

55) 「內閣移接」, 《황성신문》, 1907.12.15.

56) <Fig.1>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근대적인 궁궐 측량도이다. 『창덕궁창경궁수도철관배관도』에 포함된 「수도철관복입위치지도1」 도면으로 1908년 10월에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1907년 창덕궁 공사의 범위가 확인되었다. (이규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근대이행기 왕실 건축도면의 내용과 특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2013c, pp. 26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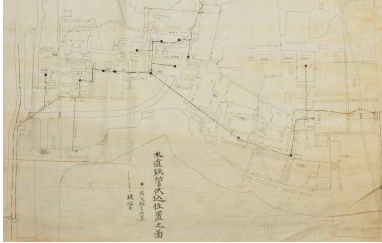


Fig.1 Site Plan of Chandeokkung and Changgyeongkung in Oct. 1908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건축도면』, 2013, p.61)

결합된 창덕궁 공사의 책임자로서 심의석이 발탁된 것은 궁내부의 전통 관료 중심의 건축조직인 영선사가 점차 근대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4. 내장원 토목과 조직의 변화

4-1. 김윤구 체제의 내장원 토목과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한 직후인 1907년 12월에 영선사는 내장원 토목과로 편입되었다.⁵⁷⁾ 내장원 토목과의 인적 구성은 1908년 1월의 직원록을 통해 심의석, 김우식, 유해중, 조한정, 박계홍 등을 확인할 수 있다.⁵⁸⁾ 무엇보다도 기술직 6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영선사 관원이 내장원 토목과에서는 기술직 4명과 행정직 1명의 5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내장원에 소속되어 회계와 서무의 행정 업무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영선사장을 포함하여 기사 4명, 기수 2명의 기술직이 기사 1명, 기수 3명으로 축소된 것이다. 영선사장 심의석은 내장원 기사로 지위가 떨어졌고, 10명의 관원 중에서 주사 김우식과 기수 유해중, 조한정, 박계홍 만이 내장원 토목과로 이입되었다.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김우식은 영선사 주사, 내장사 주사, 영선사 서기랑을 거쳐 내장원 토목과 주사가 되었다.⁵⁹⁾ 유해중은 농사아문 주사를 역임한 이후 10년간 건축공역 견습을 받은 기술 관료로서, 영선사 기수, 영선사 주사, 영선사 서기랑을 거쳐 내장원 토목과 기수가 되었다.⁶⁰⁾ 조한정은 영선사 기수, 영선사 주사, 영선사 서기랑을 거쳐 내장원 토목과 기수가 되었다.⁶¹⁾ 박계홍은 장인 출신으로 1904년 53세에 영선사 위원으로 각종 왕실 관련 공사에 참여하였고, 영선사 기수를 거쳐 내장원 기수가 되었다.⁶²⁾ 이처럼 내장원 토목과 직원들은 모두 영

Tab.5 Officials in Naejangwon Tomokgwa (1908.1)

직급	성명	이전신분
技師 (勅三等三級 從二)	沈宜碩	영선사장
主事 (判三等六級 六品)	金字植	영선사 서기랑
技手 (判三等五級 六品)	劉海鐘	영선사 서기랑
技手 (判三等六級 六品)	趙漢禎	영선사 서기랑
技手 (判四等八級 正三)	朴啓弘	영선사 기수

선사 출신으로서, 1907년 11월의 궁내부 관계 개편에 따라 영선사 조직이 축소되어 내장원 토목과로 옮겨온 것이다. 행정 사무를 담당한 김우식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기술직 관원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장원 토목과의 인적 구성은 1908년 2월이후 기존의 영선사 인력 구성과는 다르게 개편되었다. 먼저 탁지부 건축소 기수인 일본인 후지모토 만쥬(藤本万藏)가 2월에 촉탁으로 임명되어,⁶³⁾ 처음으로 일본인 기술자가 한국의 왕실 건축조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4월에는 주사 김우식이 관립일어학교 출신의 박순회와 이점성으로 교체되었고,⁶⁴⁾ 기사 심의석이 '통명전 공사비 횡령 사건'에 책임을 지고 내장원 기사직을 사임하였다.⁶⁵⁾ 공식이 된 토목과 과장의 자리는 6월에 내부 기사 김윤구가 옮겨오게 된다.⁶⁶⁾

김윤구는 관립일어학교 출신으로 일본 경응의숙(慶應義塾) 특별 보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정부의 체신성 철도국에서 2년 4개월 정도 견습을 한 일본 유학과 기술자이다. 대한제국에서는 궁내부 철도원 기수와 기사를 거쳐 서북철도국장과 농상공부 철도국장을 지냈으며, 1906년부터는 내부 치도국에서 심의석과 함께 기사로 재직하였다.⁶⁷⁾ 그는 일본에서 철도기술을 습득한 이후 줄

문》, 1904.9.15; 1907.10.27; 1907.12.8.

63) 『관보』, 1908년 2월 8일. 후지모토 만쥬는 1908년 1월에 건축소 기수로 임명되어 한국에 온 관입관 2등 기수이다. (<敍任及辭命>, 《황성신문》, 1908.1.24.) 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인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조선신사록(朝鮮紳士錄)』(경성신보사, 1909, p. 45)에 “京城日出町, 勳五等, 官吏”라고 간략히 소개될 뿐이다. 후지모토 만쥬는 1905-1908년의 일본 정부와 통감부 관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본의 대학, 공업학교, 직공학교 등의 명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민간 건축업자이거나 관청의 임시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64) 김우식은 4월 7일 장례원 전사로 옮겨졌고, (<敍任及辭命>, 《황성신문》, 1908.4.11) 4월 9일과 15일에 박순회와 이점성이 각각 내장원 토목과 주사로 옮겨왔다.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 기념표창자명감』, 조선총독부, 1935, p. 890)

65) 통명전 공사 후 남은 공사비를 국고에 되돌리지 않고 횡령한 영선사 주사 2명이 도피하고, 책임자 심의석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건이다. (<偷食現露>, 《황성신문》, 1908.3.24) 이후 심의석은 내부기사로 근무하지만, 1910년 10월 한일병합 직후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표 4>)

66) <敍任及辭命>, 《황성신문》, 1908.6.26.

67) 『직원록』, 의정부 관보과, 1906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표지에 “光武十年十二月三十日出版”이라 기록되어 있어 1906년 말

57) <宮內府令 第七號 內藏院分課規程> (국회도서관, 위의 책, 1971, pp. 99-100)

58) 『궁내부직원록』, 190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표지에 “隆熙二年一月三十一日査定”이라 기록되어 있어, 1908년 1월 31일의 궁내부 직원 현황임을 알 수 있다.

59)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p. 140.

60)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p. 312.

61) <敍任及辭命>, 《황성신문》, 1906.8.30; 1907.4.23; 1907.12.8.; 우대성, 위의 논문, 1997, p. 98.

62)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p. 212; <敍任及辭命>, 《황성신

Tab.6 Career of Kim Yungu

일자	나이	경력
1870.12.25	-	-
1876	6	한학교육(入私塾修漢學)
1894.08	24	관립일어학교 입학
1895.03	25	일본 유학생 선발
1895.04	25	동경 경응의숙(慶應義塾) 입학
1896.02	26	경응의숙 특별 보통학과 졸업
1896.04	26	일본 체신성 철도국 건설부 실지견습
1898.08	28	귀국 명령으로 귀국
1900.05.04	30	궁내부 철도원 기사 관입 6등
1902.08.21	32	궁내부 철도원 기사 주임 6등
1904.07.25	34	궁내부 서북철도국장 주임 2등
1905.03.08	35	농상공부 철도국장 주임 2등
1905.12.22	35	관규 위반으로 면직
1906.02.09	36	복직
1906.04.21	36	토목건축주식회사 창립 참여 ⁷⁰⁾
1906.04.25	36	내부 치도국 기사 주임 1등 2급
1907.11.06	37	팔괘장 5등 훈장 ⁷¹⁾
1908.04	38	일본 서보장(瑞寶章) 4등 훈장 ⁷²⁾
1908.06.22	38	내장원 토목과 기사 칙임 3등 ⁷³⁾
1920.10	50	해직 ⁷⁴⁾

* 『대한제국관원이력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1906년 이후의 경력은 각주의 신문기사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곧 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훈장을 받기도 했다.⁶⁸⁾ 철도 기술자인 김윤구는 내장원 토목과로 발령받기 직전까지 전국의 도로와 철도 등 토목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⁶⁹⁾ 이러한 경력의 김윤구가 1908년 6월에 심의석의 뒤를 이어 내장원 토목과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08년 8월에는 궁내부의 제실재산정리국이 폐지

의 현황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궁내부를 제외한 대한제국 정부의 소속직원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68) 1908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훈장은 러일전쟁 중에 일본군에 도움을 준 공로였다. (<日本勳金>, 《황성신문》, 1908.4.3)

69) <大邱全州直通路>, 《황성신문》, 1908.4.5; <土木局師出張>, 《황성신문》, 1908.4.16 등. 그의 이력과 신문기사에서 건축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70) <土木建築株式會社株式募集廣告>, 《황성신문》, 1906.6.9.

71) <宮廷錄事>, 《황성신문》, 1907.11.10.

72) 『내부래거안』, 1908.4.3. (照會 257號)

73)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8.6.26.

74) 『순종실록부록』, 1920년 11월 3일. 김윤구와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가 대조전 공사의 공로로 순종에게 은화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 『순종실록부록』에서는 해직한 관원에게 특별히 기념품을 하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관원에는 영선과 과장 곤도 시로스케와 영선과 기사 김윤구 외에 다른 소속의 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곤도 시로스케의 『李王宮秘史』에서는 준공기념으로 은화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날 휴직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權藤四郎介, 『李王宮秘史』, 조선신문사, 1926, p. 217) 김윤구가 1920년 이후에 이왕직의 직원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1920년 10월에 곤도 시로스케와 함께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大正九年 職員錄』, 印刷局, 1921) 이후의 김윤구 이력에 대하여 우대성은 1927년 12월에 철

Tab.7 Officials in Naejangwon Tomokgwa (1908.8)

직급	성명	이전신분
技師	金倫求	내부 기사
囑託 技手	藤本萬藏	탁지부 기사
主事	朴淳會	일어학교 졸업
主事	李謙聖	정동보통학교 부교원
技手	劉海鐘	영선사 서기랑
技手	趙漢禎	영선사 서기랑
技手	朴啓弘	영선사 기사
技手	姜聲國	제실재산정리국 기사
技手	李啓弘	제실재산정리국 기사
技手	崔奎煥	제실재산정리국 기사

되고, 측량과의 기사 강성국, 이계홍, 최규환 등이 내장원 토목과로 옮겨오게 된다.⁷⁵⁾ 결국, 내장원 토목과는 일본 유학과 토목 기술자 김윤구를 비롯하여, 일본인 축탁 후지모토 만조, 관립일어학교 출신 주사 박순회와 이겸성, 근대적인 측량 교육을 받은 강성국과 이계홍 등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 또는 기술직 관원과는 전혀 다른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내장원 토목과에서 건축 기술직은 일본인 축탁 후지모토 만조 뿐이었다. (<Tab.7>⁷⁶⁾ 따라서, 건축 기술 업무는 후지모토 만조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이고, 제실재산정리국 측량과 출신의 강성국, 이계홍, 최규환은 김윤구를 도와 측량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선사 출신의 유해중, 조한정, 박계홍 등은 근대적인 기법의 건축 업무보다는 기존 전각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관립일어학교 출신의 주사 박순회와 이겸성은 일본인 기술자와의 의사소통과 행정 사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⁷⁾

1909년 7월에 내장원 토목과는 다시 한번 조직이 개편되었다. 기사 마에노 미네도(前野峯土), 히로타 사나에(廣田早苗), 카츠마타 코타로(勝又甲太郎), 유부네 젠키치(湯舟善吉), 노무라 키쿠지로(野邑菊次郎)와 주사 소

도국 소속이라고 했으나, 1927년과 1928년의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 직원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75)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8.9.3. 최규환은 어원사무국 기사로 발령을 받지만, 내장원 토목과에 겸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강성국은 탁지부 측량강습생 출신이고, 이계홍은 농상공학교 출신이다. 이 두 인물은 근대적인 측량교육을 받았지만, 최규환은 경리원 주사 출신의 전통 기술 관원이다. (이규철, 『대한제국기 근대적 측량의 도입과 측량도면의 성격』, 『건축역사연구』 19권 6호, 2010, pp. 202-203)

76) 1908년의 『직원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후지모토 만조와 제실재산정리국 출신 기사 3인을 『관보』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추가하였다. (『직원록』, 내각기록과, 1908)

77) 11월에는 기사 박계홍이 사망하고, (『관보』, 1908.11.13) 철도원 기사 출신의 강한규가 옮겨오게 된다.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8.11.25) 강한규는 충청북도 관찰부 주사, 철도원 주사, 철도원 기사를 역임한 경력이 갖고 있어,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0.10.25; 1901.1.12; 1902.9.6) 박계홍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Tab.8 Officials in Naejangwon Tomokgwa (1909.7)

직급	성명
課長(技師)	金倫求
兼勤(掌禮院典祀)	劉海鐘
囑託(技手)	藤本萬藏
囑託(技手)	姜聲國
主事	李謙聖
主事	朴淳會
囑託(主事)	桑原辰之助
技手	姜漢奎
技手	趙漢禎
技手	李啓弘
兼勤(御苑事務局技手)	崔奎煥
囑託(技手)	前野峯士
囑託(技手)	勝又甲太郎
囑託(技手)	廣田早苗
囑託(技手)	湯舟善吉
兼勤(御苑事務局囑託)	野邑菊次郎

엔 다즈노스케(桑原辰之助) 등의 일본인 촉탁이 대거 총원되었고,⁷⁸⁾ <Tab.8>⁷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 기술 인력 중심의 건축조직이 되었다. 한일병합 이전까지 왕실 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내장원 토목과는 행정직 주사 4명을 제외한 12명의 기술직 중에서 강한규, 조한정, 최규환을 제외한 9명이 근대적인 건축 또는 토목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과장 김윤구의 책임하에 후지모토 만조를 비롯한 일본인 촉탁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실무가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왕실 건축 조직인 영선사 출신은 조한정 한 명 뿐으로, 1908년 이후 내장원 토목과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4-2. 내장원 토목과의 건축활동

내장원 토목과에서는 심의식의 주도로 진행된 1907년 창덕궁 공사의 후속 공사로서, 인정전 영역의 개조 공사를 늦어도 1908년 5월부터 계획하였다. 인정전과 부속 행각의 개조 도면이 1908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제작되었으며,⁸⁰⁾ 7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하여⁸¹⁾ 12월 이전에 완

78) 『관보』, 1909.7.6. 노무라 키쿠지로는 이 관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09년 6월 『직원록』에 다른 일본인 촉탁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비슷한 시기에 임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원록』, 내각기록과, 1909)

일본 이름의 독음은 웹과 선행연구를 통해 해당 인물의 정확한 인명독음을 찾곤자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인명읽기사전』을 참고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독음을 선택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했다. (日外アソシエーツ, 『일본인명읽기사전』, 그린비, 1995)

79) 1909년의 『직원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직원록』에는 1908년 6월 현재의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 내장원 토목과에 일본인 촉탁이 1908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908년 7월 현재로 표기하였다. (내각기록과, 위의 책, 1909)

8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인정전 영역의 개조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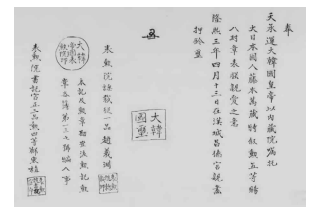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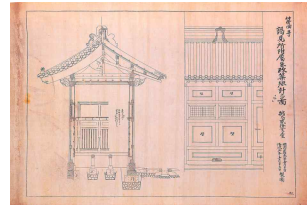


Fig.2 Remodeling Drawing of Injeongjeon Area on Manjo (National Archives of Japan, [動00308100])
 Fig.3 Honour of Hujimoto of Injeongjeon Area on Manjo (National Archives of Japan, [動00308100])
 May 23, 1908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2009, p. 37)

료하였다.⁸²⁾

인정전 영역 개조 공사의 시기와 내장원 토목과 관원을 비교해 보면, 심의식이 사임한 4월을 전후로 하여 2월과 6월에 내장원 토목과에 각각 옮겨 온 후지모토 만조와 김윤구가 인정전 개조 공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 김윤구와 촉탁 후지모토 만조는 1908년의 인정전 개조공사의 공로로 각각 4등 태극장과 5등 팔괘장의 훈장까지 받았다.⁸³⁾ 기사 김윤구는 내장원 토목과의 책임자이자 토목 기술자로서, 공사 전반의 계획과 진행을 총괄하면서 건축 공사보다는 측량과 토목 공사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다. 건축공사는 후지모토 만조가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일본인 기술 인력의 도움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5월에서 7월에 제작된 인정전 개조공사의 도면에 “K.K”, “S.H”, “紅”, “N.J” 등의 제작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K.K”와 “S.H”는 각각 카즈마타 코타로와 히로타 사나에의 약자로 판단되고, 창경궁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을 계획한 『창경궁급비원 평면도(昌慶宮及秘苑平面圖)』에는 1908년 4월의 제작 시기와 함께 제작자 마에노 미네도가 표기되어 있다.⁸⁴⁾

된 도면이 13매 소장되어 있으며, 이중에 도면 작성일자가 표기된 5매의 도면이 모두 1908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제작되었다. (『근대건축도면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pp. 30-41; 116-117)

81) 우동선·기세황, 「1908년 창덕궁 인정전 일곽의 개조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3권 2호, 2014, p.54.

82) 인정전 영역의 공사가 끝난 시점이 명시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정전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10월의 신문기사와 1909년 1월 1일에 인정전에서 친수축하식(親受祝賀式)이 열린다는 신문 기사를 통해, 1908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각중슈경비>, 《대한매일신보》, 1908.10.8; <新年親受賀式來一月>, 《황성신문》, 1908.12.27)

83) 1909년 3월 8일 『표훈원래거안』에는 인정전 수리시 내장원 토목과장이었던 김윤구와 내장원 촉탁 후지모토 만조에 대한 서훈안을 제출한다는 조희가 기록되어 있고, 김윤구와 후지모토 만조는 각각 4월 26일과 4월 13일에 훈장을 받았다. (『순종실록』, 1909.4.13;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9.4.22;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9.5.1)

84) 장서각 소장 도면에 표기된 일본인 기술자의 이름과 경력 등은 이강근과 이규철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이규철, 위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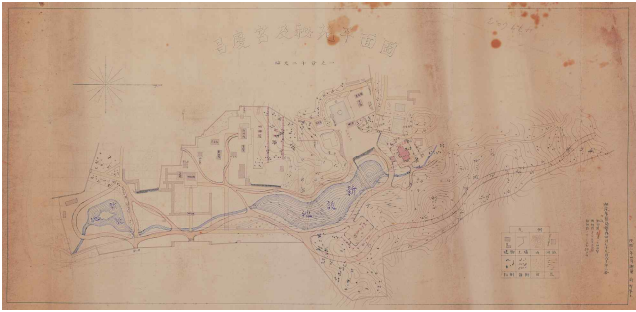


Fig.4 Drawing of Changgyeonggung and Biwon by Maeno Minedo on April, 1908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2009, pp. 154-155)

따라서, 1908년 4월 이후 내장원 토목과에는 후지모토 만조만이 정식 촉탁으로 근무했지만, 도면 제작을 위해 카즈마타 코타로, 히로타 사나에, 마에노 미네도 등 여러 임시직의 일본인 기술인력이 고용되어 있었고, 이후 1909년 7월에 이들이 내장원 토목과의 촉탁으로 정식 발령을 받은 것이다.⁸⁵⁾

1908년의 인정전 영역 개조공사 이후, 1909년에는 창덕궁의 궁내부 청사를 신축하는 한편,⁸⁶⁾ 창경궁을 동물원, 박물관, 식물원으로 개조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⁸⁷⁾ 이들 공사에서도 1907년 7월에 내장원 토목과 촉탁으로 임명된 기수 마에노 미네도, 히로타 사나에, 카즈마타 코타로, 유부네 겐키치, 노무라 키쿠지로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히로타 사나에가 궁내부 청사와 제실박물관의 도면을 작성하는 등 내장원 토목과의 일본인 촉탁 기사들을 중심으로 건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노무라 키쿠지로는 식물실 건축 공사의 공로로 1910년 1월에 훈장을 받기도 했다.⁸⁸⁾

2010, pp. 204-206; 이강근, 「장서각 소장 근대 건축도면에 대하여」,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pp. 13-14)

85) 후지모토 만조와 마찬가지로 카즈마타 코타로, 히로타 사나에, 마에노 미네도 등의 일본인 기술 인력의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카즈마타 코타로는 1930년 12월호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의 부록인 『회원명부(會員名簿)』 <내지, 만주의 부(内地, 滿洲の部)>에서 1930년 현재의 나가사키(長崎) 주소만 확인할 수 있었다.

86) <宮内府落成宴>, 《황성신문》, 1909.11.23.

87) 1909년 5월에 동물원과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박물관 기지』, 《대한매일신보》, 1909.5.26) 11월에는 온실을 완공하면서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모두 개방하고 <여원총람규정(御苑總覽規程)>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御苑總覽의 規程>, 《황성신문》, 1909.11.3)

88) 『관보』, 1910.2.3;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10.2.4. 이 두 기록에서는 『직원록』(1909, 내각기록과)의 “野邑菊次郎”과는 달리, 노무라 키쿠지로의 이름이 “野邑菊治郎”으로 표기되었다. 어느 표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논문에서는 『직원록』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이와 같이, 내장원 토목과에서는 1908년에서 1910년 사이에 창덕궁의 인정전 영역과 궁내부 청사, 그리고 창경궁의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건축활동은 통감부 체제에서 새로운 황궁의 주요 시설인 알현소, 관청,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였다. 일본의 근대적인 황실 시설을 모방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별 건축물에서도 인정전 행각, 궁내부 청사, 제실박물관 등에서 서양식 트리스를 도입한 일본의 화양식(和洋式) 목구조가 주로 사용되었고, 벽돌과 콘크리트 등의 새로운 재료들도 사용되었다.⁸⁹⁾ 특히 궁궐 건축의 구성에서도 일본의 메이지 궁전을 모방하는 등⁹⁰⁾ 전반적인 왕실 건축의 양식, 재료, 기법 등이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인 건축 기술 인력이 궁내부 건축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왕실 건축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 이전에 이미 식민지 체제의 주요 왕실시설의 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며, 이것들이 일본인 기술 인력의 주도로 계획되고 시행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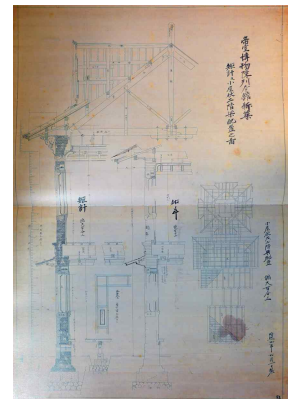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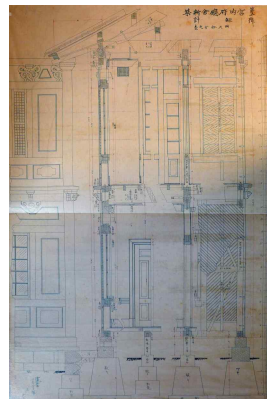


Fig.5 Drawing of Gungnaebu Building by Hirota Sanae on March 20, 1909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2009, pp. 46-47)

Fig.6 Drawing of Royal Museum by Hirota Sanae on June 1, 1910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2009, pp. 164-165)

5. 맺음말

1910년 8월 한일병합 이후, 내장원 토목과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일본인 촉탁 후지모토 만조, 마에노 미네도, 히로타 사나에 등이 해임되고,⁹¹⁾ 이어서 1911년 2월에

89)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선행 연구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위의 책, 2009, pp. 44-79; 우동선·기세황, 위의 논문, 2014, pp. 56-59.

90) 우동선·기세황, 위의 논문, 2014.

91) 『조선총독부 관보』, 1910.11.18.

궁내부가 이왕직으로 개편되면서 내장원 토목과는 회계계 영선실로 편입되었다. 본격적인 식민지 체제에서는 일본인 주임 사무관 하야시 후미타로(林文太郎)를 비롯한 이왕직의 새로운 건축조직으로 다시 재편된 것이다.⁹²⁾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민지 체제가 갖추어지기 이전인 통감부 시절부터 궁내부의 영선사와 내장원 토목과를 거치면서 왕실 건축조직이 재편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궁내부 건축조직의 재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영선사의 심의석 체제에서 내장원 토목과의 김윤구 체제로의 전환이다. 두 인물은 내부 치도국에서 함께 기사로 재직하기도 했고 토목건축주식회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경력에서 크게 대조된다. 심의석은 장인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각종 왕실 건축 사업에 참여하였고, 여러 국가 사업을 통해 근대적인 건축 기술도 익히게 된 경험 많은 전통 건축 기술자이다. 이에 반해 김윤구는 일어학교 출신으로 일본에서 근대적인 철도 기술을 배웠고, 국내에서도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젊은 유학과 토목 기술자이다. 이러한 상반된 경력의 두 인물은 영선사에서 내장원 토목과로 재편되는 궁내부 건축조직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왕실 건축의 근대이행이 전통 장인 중심의 심의석 체제에서 일본인 기술인력 중심의 김윤구 체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석 체제의 영선사 출신 관료들은 심의석과 마찬가지로 김윤구 체제에 남지 못했고, 일본인 기술인력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특히, 김윤구가 건축 기술자 출신이 아닌 토목 기술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술인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내장원 토목과 이후의 왕실 건축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심의석과 김윤구 모두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했던 1907년 이후 창덕궁의 개조사업은 궁내부 건축조직의 인적구성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심의석이 추진했던 1907년의 사업에서는 기존 전각을 일부 철거하고 과거의 건축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1908년 이후 김윤구와 일본인 촉탁 중심으로 추진된 창덕궁의 개조는 서양의 근대적인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화양식 목구조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궁궐의 구성 형식도 일본의 메이지 궁전을 모방하는 등 일본 건축 기술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궁내부 건축조직의 재편 과정

을 고찰하여, 구체적인 궁내부의 인적구성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통감부 시기 왕실 건축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수 있었다. 다만, 일본인 기술인력의 경력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고, 이 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이행기의 왕실 건축의 변화에서 건축조직의 변화라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서 궁내부를 계승한 이왕직의 건축조직과 궁내부와 이왕직을 포함한 왕실 건축조직에서 시행한 건축사업의 실체를 규명하여 근대이행기 왕실 건축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Jikwonrok*(職員錄), Euijeongbu, 1906
2. *Gungnaebugwanan*(宮內府官案), Gungnaebu, 1906
3. *Gungnaebu Jikwonrok*(宮內府職員錄), 1908
4. *Jikwonrok*(職員錄), Naegak, 1908-1909
5. *Iwangjik Jikwonrok*(李王職員錄), Iwangjik, 1911/1914
6. National Assembly Library, *Hanmalgeundaebepryeongjaryojip*(한말근대법령자료집), vol. I;IV~V, 1970-1971
7.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aehanjeguk Gwanwon Ireokseo*(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72
8. Woo Dae-seung, "A study on the architecture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in Korea modern perio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1997
9. Lee Yoon-sang, "The Status of 'Royal-Family of Joseon' and the role of 'Office of Yi Royal-Fami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n Culture*, vol. 40, 2007
10. Jangseogak Archives, *Geundaegeonchook Domeonjip*(近代建築圖面集), 2009
11. Lee Geau-Chul, "The Development of Modern Surve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rvey Drawings in Early Moder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 19 No. 6, 2010
12.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Architectural Drawings of Joseon Royal Household in the Collection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3
13. Lee Geau-Chul, "Building Organization in Gungnaebu and Iwangjik", *Key Concepts of Korean Architecture*, Dongnyok, 2013a

92) 『이왕직직원안』, (이왕직), 191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왕직직원안』에는 1911년 2월 1일 서임된 이왕직 직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14. Lee Geau-Chul, "Building Surveys and Nationalization on Royal Facilities during the Residency-General Period (1906~1910)",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 22 No. 4, 2013b
15. Woo Don-son, Kee Sehwang, "A Study on the Remodeling of Injeongjeon Area at Changdeokgung Palace in 1908",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 23 No. 2, 2014

접수(2014.08.12.)

수정(1차:2014.10.14. , 2차:2014.10.21.)

게재확정(2014.10.31.)